

태고종 총무원 - 선암사 '운영권' 등으로 갈등

물리적 충돌 위기 넘겨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이 선암사의 운영권과 말사인 도선암 재산권 등의 문제로 총림인 순천 선암사와 극한 대립을 보이며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갔다.

사태의 발단은 태고종 총무원이 8월 30일 선암사 주지에 대해 행사 교육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해중'이라며 승려 자격정지를 의미하는 정적 및 주지 해임을 통지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선암사 재직승들은 다음 날인 9월 1일 전산대회(총회)를 열고 선암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총무원측의 '운영위원회법' 무효를 주장하며 자주권 수호운동을 결의했다.

이후 선암사 측은 9월 3일 순천경찰서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당일 낮 12시부터 경찰병력 2개중대가 사찰 입구를 막고 선암사 대중 이외의 출입을 제한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4일 오후 2



9월 4일 선암사 매표소 앞에서 선암사 대중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선암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 2개 중대가 배치돼 일방적인 출입을 막았다.

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총무원과 선암사는 각각의 역할분담으로 종관수호와 그릇된 관행, 제도를 과감히 개선 할 것 △편견을 가진 일부 선암사 재직승들은 정견을 가지고 종단과 화합하도록 노력하며 이번 갈등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중행위자는 퇴출하고 총림 질서 회복할 것 등을 결의했다.

총무원측의 법회 연기 결정으로 이번 선암사 사태는 일단 별 충돌없이 끝났다. 하지만 선암사측은 여전히 자주권을 주장하며, 도선암을 비롯한 선암사 재산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선암사 경담 스님은 "선암사 운영에 자주권을 주지 않고 종단이 계속 관여하겠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선암사측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암사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종단과 합리적으로 협상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담 스님은 "선암사를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새롭게 했다"며 "재직승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관련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선암사 중진 스님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중도들에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핵심주장에 대해서는 경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준엽 · 김주일 기자

행사 합동득도법회 잠정 연기

도선암 재산권 문제 등 불씨 남아

완전타결 장기간 소요될 듯

시부터는 선암사 대중 스님과 신도 100여명이 선암사 매표소 앞에서 철문을 굳게 닫고 "선암사 운영은 재직승에게 있다"며 △총무원의 선암사 운영 음모 중단 △도선암을 비롯한 선암사 재산 반환 △행사교육 연기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같은 선암사 대중의 산발한 단체행동으로 사실상 선암사 참배가 어려운 가운데 윤담을 맞아 삼사순례차 선암사를 찾은 다수의 참배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태고종 총무원은 9월 4일 종단 원로 중진 및 전국 각지도 총무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행사 합동득도 수계산립 법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의해 충돌은 일단 비껴가게 됐다.

총회위원장 인공 스님 등 참석자들은 "행사 득도 교육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총무원과 선암사간에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중도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종단뿐 아니라 불교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입을 모아, 합동득도 법회가 연기됐다.

회의가 끝난뒤에는 태고종 원로와 각 기관 간부 스님들이 종단과 선암사의 중단없는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단발전을 위해 총무원과 선암사

■ '선암사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 선암사 운영문제

▲선암사 : 현 운산 총무원장은 2000년 제19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암사 운영권을 재직승들에게 돌려준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7일 총무원 주도로 후임 주지를 선출하려다 이를 알고 소집된 선암사 재직승의 방해로 무산되자, 같은해 12월 22일 중앙총회를 소집해 선암사 총림법을 낚지기로 통과시키고 선암사를 강제 운영했다.

▲총무원 : 2004년 12월 중앙총회에서 태고종립 선암사법을 개정해 선암사 재직승에게 운영권을 분명히 돌려줬다. 선암사법 개정결과를 살펴보면 선암사 주지는 반드시 선암사 재직승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해 태고종립이 재직승 위주로 자체운영하도록 했다.

◆ 선암사 말사 도선암 재산 환수 문제

▲선암사 : 말사인 도선암을 불법으로 운산 총무원장 스님의 재단인 태고원에 불법등기 이전했다. 또한 선암사의 운영위원회나 전산대회 등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더욱이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도 모르게 2003년 이전했으며, 선암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월권을 저질렀다.

선암사 "도선암, 태고원서 불법등기"

총무원 "소유권과 관리주체는 달라"

▲총무원 : 태고종은 사찰관리제도를 조계종처럼 본말사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찰재산의 소유권 등기는 독립된 해당 사찰 명의로 되어 있다. 도선암 재산은 민법과 중헌종법에 의해 도선암 대표인 주지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현 주지 승조 스님이 중헌종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했기에 불법이 아니다.



법당이 확~ 넓어졌어요

한 비구니스님의 원력으로 작고 남은 법당을 장병들이 편하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내무반을 개조한 넓은 법당으로 이전 개원해 화제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6포병여단 예하 999대대 범음사 포교당은 9월 2일 해남 대홍사 도공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범음사 포교당은 원래 영내 가장 외진 곳에 5평 남짓 창고를 개조해 법당으로 사용해 왔으나 비구니 호택 스님이 11년간의 노력으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20여평 규모의 내무반을 개조해 이변에 이전하게 됐다.

이동숙 6포병여단장은 이날 법회에서 "장병들의 신앙전력화를 위해 부처님의 도량이 이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부대의 안녕과 장병들의 밝은 군생활을 위해 좋은 공간이 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호택 스님의 원력으로 경기도 연천 범음사 포교당은 9월 2일 부처님 점안식 및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장병들의 안식처로 거듭났다. 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호택 스님.

범음사 포교당, 내무반 개조해 이전

비구니 호택 스님 11년 노력 결실

"아직 난방시설 못 갖춰 겨울이 걱정"

호택 스님은 6포병여단 범음사를 비롯해 예하 10개 법당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비구니스님. 범음사에 상주하며 10개 군법당을 매월 한두차례 직접 방문, 법회를 주관하는 등 군포교에 전력하고 있다.

20년 전 어렵게 법회를 보는 군법당의 사정을 접하고 시작한 군법당 법회 지원이 지금은 스님의 전부가 되었다. 군법

당을 운영하다보니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번 범음사 포교당도 스님의 승가대학도반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 이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

해 스님은 겨울철 장병들이 추위에 떨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호택 스님은 "도반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법당을 이전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보다 많은 장병들이 이곳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군생활을 잘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김두식 기자

무량회, 향로암 위문

간식 · 부모은중경 등 전달



대한불교 무량회(회장 박원희)는 9월 3일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향로암 위문을 다녀왔다. 이날 10여명의 회원들이 김밥 250줄을 비롯해 초코파이, 음료수, 부모은중경 등 푸짐한 위문품을 장병들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날 초청강사로 참석한 前 불교신문 양범수 편집국장은 "부처님 믿는 마음 변치 말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량회는 지난 1996년 조계종 자원봉사센터 산하 봉사단체로 출범해 10년동안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춘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등침 및 문외 : 조계종 군포교구 (02)797-7266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제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銅) 문의:02-2004-8291

만인동참
ARS: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004-8213~9 www.bexpo.org